

오늘 다룰 내용은 norm(노름)이다. 왜 '노름'이라고 이름을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다. '놈, 늬'이란 용어가 이상해서 인가...

언어적 기원을 따져보면, 라틴어에서 왔으며, **지침, 규칙, 목수의 직각자(?)**가 어원이라 한다. 이를 통해 추측해볼 수 있는 의미는 **'어떤 대상에 대한 기준'** 정도가 될 것 같다. 이러한 의미에서 살펴보면, 행렬(또는 벡터)에 있어서 norm(노름)은 행렬이나 벡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고, 행렬이나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데 이는 원소의 개수(size)가 아닌, 다른 크기를 가진 행렬이나 벡터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크기이다. 영어로는 'magnitude'가 그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, 이를 좀 더 풀어 써 보자면, 다른 행렬이나 벡터에 연산을 했을 때 해당 행렬이나 벡터가 미치는 **영향력**이라 볼 수 있겠다.